

만남

2018년 8월
통권 163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천사가 필요한 세상-----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하느님께 희망을 둔 이들의 행복--	4
소공동체 소개	-----	7
교리	교리산책-----	8
기도 소개	어머니의 그 이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일반: 가정의 보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는 경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인류의 보화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가 필요한 세상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전통에 따르면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념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한 존재가 또한 천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어서 피는 꽃처럼 소리 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을 대신해서 가난하고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사람들 역시 이 시대 천사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천사’입니다. 우리 내면엔 선을 행하려는 좋은 의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측은지심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의 인호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느님 자비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된 노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들입니다.

때로 투박하고 불품없어 보이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체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자 어두웠던 내 삶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가까이 다가오자 무기력했던 내 삶이 생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빛을 발하고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가 틀림없습니다.

한 인간을 바라보며 참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때로 고통이고,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 한 인간으로 인해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인해 내가 지옥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서 보다 많은 천사가 필요합니다. 측량할 수 없이 깊은 하느님의 사랑을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천사,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의기소침해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무인도처럼 고립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가는 천사,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랑의 언어를 매 순간 사용하는 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천사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둔 이들의 행복(시편 146,1-10)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46,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2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한.
나의 하느님께 찬미 노래하리라, 내가 있는 한.
- 3 너희는 제후들을 믿지 마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인간을.
- 4 그 열이 나가면 흠으로 돌아가고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도 사라진다.
- 5 행복하여라, 야곱의 하느님을 도움으로 삼는 이
자기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
- 6 그분은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다.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 146, 7 억눌린 이들에게 올바른 일을 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붙잡힌 이들을 풀어 주시고
- 8 주님께서는 눈먼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 9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꺾어 버리신다.
- 10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피알시대,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광고는 이제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맛집 거리를 가보면 온갖 방송에 출연한 이력이 붙은 간판이 즐비하고, ‘원조’라는 말이 붙어 있는 간판이 많아서 어느 집이 진짜 원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만나게 됩니다. 입사원서를 쓸 때, 자기 소개서를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광고들 속에서 정작 자신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낯선 자신을 마주할 때, 나를 치장하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3장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만남의 집 공동체(장승포본당 구역분과장 박선옥 요세파)

장승포본당은 1953년 설립되어 올해로 65주년을 맞이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장승포 본당이 있는 거제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으로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고, 지세포에는 윤봉문 요셉 순교 성지가 있어서 많은 순례객이 방문합니다. 조선소가 있어 인구의 절반은 조선업에 종사하는데, 저희 성당도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 비교적 젊은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임하신 신부님께서서는 소공동체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조선소의 어려움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타 지역 전출이 많아지자 소공동체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6개 구역 18개 반으로 개편하셨습니다. 또한 월례회 때에는 반구역장을 대상으로 소공동체 교육을 하십니다. 토요일 오전이며 각 구역별로 본당 청소를 하고, 교중미사 때는 이름표를 패용하여 자신의 소공동체가 어딘지 확인하고 평화의 인사 중 세례명을 불러주며 서로 인사를 합니다.

주일 낮 미사 후에는 구역별 식사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제외한 주일미사 후 모든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만남의 집을 운영해온 지도 20년이 됩니다. 반구역별로 주일미사 전 날부터 미리 식재료를 준비하고 주일 당일에는 배식봉사와 설거지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자발적인 기탁으로 운영되는 만남의 집은 본당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매주 식사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교우들 간의 친교와 결속을 다지는 소통의 자리라는 것을 공감하기에 20년째 꾸준히 운영되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남의 집 운영이 잘 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본당 구역분과장과와 만남의 집을 2년간 맡아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 했던 저에게 뜻하지 않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힘든 수술과 여러 치료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셨고, 다시 구역분과장을 맡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믿고 또 청합니다. 아울러 장승포 본당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 당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충실히 따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2.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약상을 전해줍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가르침을 선포하며,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믿음으로 사랑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믿을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추려 입교예식과 전례 중 신앙고백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3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여러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례 중에 사용하는 사도 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인 교회’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보살핌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은 하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모두가 같은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으로 모으신 거레이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나라이며,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어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란 신앙의 내용과 공동 예배 예식인 전례가 사도로부터 전승된 것이며 특히 교회 통치가 사도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관할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전례를 거행하며 로마 주교, 즉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모시는 특성을 가지는 교회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 특성을 종합한 것이 ‘가톨릭’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보편되다.’라는 의미의 옛말 ‘공번되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이 바로 공번된 것, 가톨릭의 신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3. 평화

평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과연 ‘평화’란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①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② 평온하고 화목함’이라 적혀 있네요. 과연, 어떤 사람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대 세력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평화란 창조주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선한 질서의 실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의의 실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평화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랑과 정의로 하느님의 질서 안에 있는 세상이라면 이미 우리는 평화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의 분쟁 해결 전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가 제안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그리스도의 평화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랑만이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이사 2,4)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해 다가갈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실제적인 행동에 앞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평화를 위해 투신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입니다.

신앙인에게는 평화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현세의 평화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의 결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임금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부활하시어 사랑의 성령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평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24.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표현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다양한 칭호를 사용한 이유는, 각각의 칭호가 예수님 안에 계시된 신비를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 하나의 칭호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기름부음 받은 이’를 뜻합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지도자로 뽑으신 임금, 사제, 예언자가 취임하는 의식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1코린 8,6)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양’을 노래합니다. 요한 묵시록에 “어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묵시 5,6)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에도 어린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어린양이란 칭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복음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려 70번이나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는 대명사 대신 사용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종말에 나타나 만민을 심판할 천상의 주권자를 뜻합니다.(다니 7,13-14 참조)

‘말씀(로고스)’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요한 1,1 참조) 곧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이름(이해인 수녀님)

하늘에 올림 받으신 어머니!
순교자의 붉은 피
스며있는 이 땅에서
8월의 푸른 하늘 우리러 불러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사랑입니다.

늘 저희를 앞질러
사랑하시는 어머니께
저희도 사랑으로 봉헌합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우리 겨레, 우리 교회, 우리 이웃,
우리 자신들을
살아있는 기도로 봉헌합니다.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오늘
선보다 악이 꽃을 피워 괴로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중심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할 말을 잃은 저희에게

영적인 지혜를 밝혀주시고
타는 목마름을 적셔주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쓸쓸할 때
간절한 그리움으로 불러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평화입니다.



질문

저는 분노가 아주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제가 하도 화를 잘 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가까이하지 않는데 그것마저도 화가 납니다. 제가 가진 문제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분노를 참지 말고 아예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요. 저처럼 늘 화를 내는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지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심리 상담 소장)

형제님은 그래도 자기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니 비교적 건강한 분입니다. 화를 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성격 장애자’와는 달리 자기 문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님 성격이 그리 병적이지 아니란 것을 입증하는 것이니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문제아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스스로 분노절제가 안 된다,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난다고 하지만 사람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다 이유가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싸잡아 분노를 다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노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기를 쓰듯 분노일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화가 났을 때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분노가 정당한 이유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지왜곡’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므로 분노의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왜곡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내가 가진 병적 신념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고 분노하는 경우 인지왜곡에 의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런 인지왜곡이 심하면 자칫 피해망상을 비롯한 각종 망상에 사로잡혀 비이성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신문 사회면에 자주 나타나는 분노발작에 의한 범행들은 거의 인지왜곡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형제님 분노가 인지왜곡에 의한 것이라면 형제님이 가진 생각을 교정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노가 합당한 것인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소위 명령조의 인지가 구조화돼 있는 경우 ‘너희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등등의 생각이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내가 뭐가 잘나서’ 등등의 생각으로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분노의 이유에 초를 쳐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노 피하기’입니다. 대개 분노가 심한 사람들은 강박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노를 일으키는 생각에 집착해서 떨어질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약간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관심의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사람 마음은 성숙한 상태가 아닌 미성숙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분노의 대상을 바꿔주기만 해도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즉,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생각을 의지적으로 함으로써 분노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머릿속 생각, 분노를 유발하는 생각들에 “그만” 하고 외치거나 “내 머릿속에서 나가!” 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마귀들인 사람에게 구마경을 외치셨듯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들, 특히 대인관계에서 입은 손실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손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개 화를 낼 때는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화를 내면 지배욕구가 채워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화를 내서 입은 손실을 냉정히 생각해본다면 분노가 절제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줄 것인지,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할 것인지, 내가 죽은 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줄 것인지 혹은 잊을 것인지 가끔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분노조절을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행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담소도 즐기고, 특히 유머집이나 TV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가까이해서 늘 웃고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흔들다 - 정안야(살로메)

며칠 전 여름을 여느라 분주한 한낮의 열기를 슬그머니 잠재운 저녁, 평일 저녁미사를 드리러 신자들이 하나 둘 성당에 모여들었다.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언제나 큰 즐거움이다. 미사 시작까지는 시간이 남아 차분하게 앉아 묵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방문 오신 주교님께서 기타를 들고 활짝 웃으시며 들어오셔서 제대 앞에 앉았다.

주교님은 품을 받으시고 함부르크에 첫 방문이었다. 22년 전에 손님신부님으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주교님도 연륜이 느껴지고 온몸에서 풍요로움이 풍겨났다. 이제 주교님이 되시어 근엄한 모습만 보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나 소탈하고 신자들 가까이 다가와 정겹게 대해 주셨다. 주교님이 경상도 사투리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할 때 모두 놀라 함박웃음을 지었다.

처음에는 신자들이 웃기만 하다가 차츰 깊이 있는 성서 말씀에 점차 진중하게 귀를 기울였다.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한 마디 말이라도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기억에 남는 기쁨과 가르침을 건네주신 셈이었다.

주교님은 척추와 목 등 열다섯 번이나 수술을 했다. 메탈이 박힌 몸을 이끌고 아픔의 고통을 친구로 삼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체험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 학교 다닐 때 너무나 짓궂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모친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잡으려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신학교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해 군대를 갔는데, 가장 힘이 드는 공수부대를 선택하였다.

훈련 도중 낙하산을 타다, 사고가 발생하여 생명은 건졌지만 온몸은 망가졌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병석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다. 곰곰이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아픔의 시간들이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신학교로 복귀했다. 사고로 인해 몸은 망가져 밤, 낮으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오늘날 아픔을 친구로 삼고 살아간다 했다. 오랫동안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위로해주고 깨달음을 주셨다. 이런 고통을 통해 사제의 길로 부르신 것일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 아픔에 동참되어 눈물을 흘렸다.

때로는 개그맨처럼 때로는 소설가처럼 기가 막히게 유쾌하고 흥겹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엮어나가는 모습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주교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당신은 쿤스트(Kunst, 예술가)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분이 아픔의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활력소가 무엇이였을까, 하고 생각했다.

주교님은 모친의 얘기도 들려주셨다. 부친은 교사였는데 술과 사람들을 좋아하신 분이래 모친을 힘들게 하였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부친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은 일체하지 않았다. 만약 모친께서 나쁘게 말했다면 부친에 대한 좋은 기억은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모친은 자식들이 부친의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자식들의 마음과 형편을 보살피며 살아왔는지 반문했다. 난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게 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나름 잘 한다고 한 일이지만, 자식들은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온 건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의 두 눈에는 슬그머니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이제라도 마음의 속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했다.

만남이 짧을수록 아쉬움은 크게 마련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신 주교님과의 이별은 몹시 안타깝기만 했다.

짧은 만남에도 주교님은 많은 위로와 기쁨과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주교님은 함부르크 공항에서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작별의 손을 흔들었다.

비행기가 창공을 날기 시작하자 주교님이 기타를 치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우리가 목소리를 엮어 합창을 하던 노랫소리가 비행기 뒤를 따라 하늘로 날아갔다. 노년에 든 우리가 앞으로 주교님과 함께 노래할 날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주교님과 보낸 4일간의 짧은 날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준 시간들은 진한 감동으로 가슴에 박혀 잊히지 않을 것이다.



❖ 8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리 디 아	손 수 민			현(김)영애
8일	도미니코	김 대 현	18일	헬 레 나	이 미 용
		김 치 수			백(이)영자
		배 성 우			윤 혜 진
	도미니카	심(김)선옥	23일	로 사 필 립	최 종 금
10일	라우렌시오	우 동 천			이 중 지
		엄 현 석			해준
					Heifler
11일	수 산 나	노 정 자	24일	바르톨로메오	남궁춘배
		서 수 진			
15일	마 리 아	정 마리아	27일	모 니 카	손 수 희
		김 춘 옥			윤 예 진
18일	클라우디아	김(이)영희	28일	아우구스티노	이 석 우
		이 지 연			이 철 우

❖ 8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 리 아	김일자(B) 황치숙(B)	18일	글 라 라	전영웅(H)
10일	테 레 사	고희지(B)		헬 레 나	박선자(H) 설윤자(O)
			22일	셀 리 나	김신자(H) 김세린(H)
11일	수 산 나	강민정(B)	23일	로 사	정지연(H) 최 랑(O)
	알 레 나	배 알레나(B)			백일순(H)
	마리스텔라	정은찬(H)	27일	모 니 카	임소영(O)
15일	스 텔 라 마리 스텔라	부지우(O) 강주희(H) 김세담(H)	28일	아우구스티누스	서선영(B) 고찬연(B)

❖ 8월 성가번호 ❖

8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411	213	158	445
12일	329	54	156	451
19일	337	51	170	460
26일	가 족 미 사			

❖ 8월 미사 전례 봉사자 ❖

8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5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회
12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주일학교	1구역
19일	이정훈(요나스) 서유미(레지나)	김치수(도밍고) 이영희(클라우디아)	청년회	2구역
26일	가 족 미 사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6월 24일	7월 1일	7월 8일	7월 15일
계(€)	197,10		261,62	177,98
헌납금	100	60	120	140
구좌입금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400,00 * 헌납금 총 합계 820,00			

❖ 7월 1일 주교좌성당 125주년 기념 음식 판매 수익 : 280,65 €

❖ 7월 8일 주교님 미사 때 브레멘 공동체의 Spende : 100,00 €

❖ 자진헌납금 ❖

2018년 6월 24일 - 2018년 7월 15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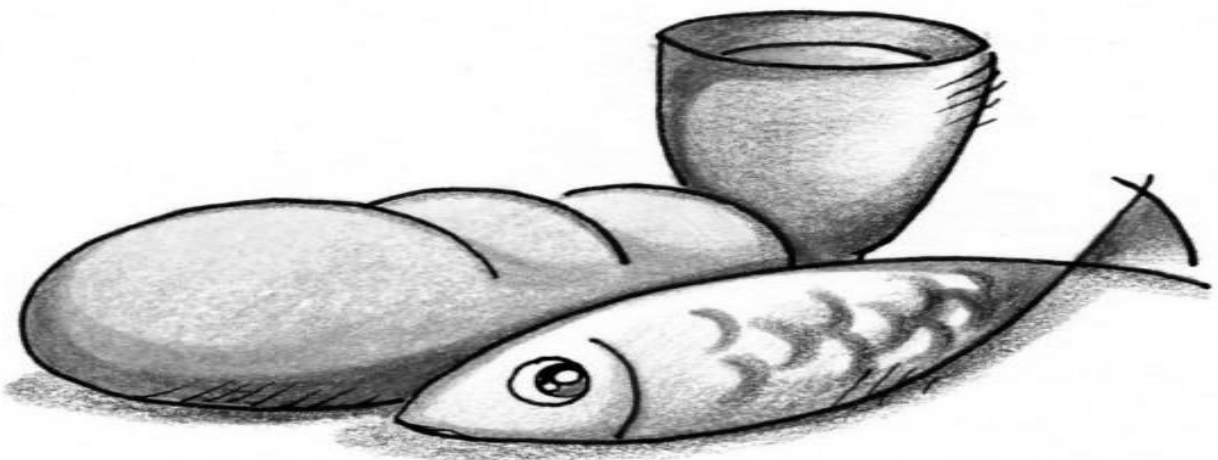
이수용,	이기열,	이현묵,	윤예진,	이경규,	진윤희,	이종화,
강신행,	김민옥,	우동천,	이정수,	이궁중,	심동근,	이(박)정은,
강순행,	황영선,	김형용,	서세원,	손수희,	최장용,	김경렬(점선),
최승진,	배성우,	김경미,	김건,	현영애,	김민수,	신옥희,

구좌입금 :

김대현,	김유석,	영희Huber-Pahk,	강일남,	홍종각,	옥종인,
백정선,	남궁준배,	최순남,	김동수,	홍경영,	김진호,
허두옥,	이정훈,	김치수,	영희 Eggerstedt,	김보경,	이상봉,
이철우,	허길조,	방조영자,	허채열,	권지연 Rabe,	이성원,
박준병,	이석우,	김원자,	최현봉,	최성자,	옥수 Ranitzsch,
정정숙,	최화영,	서유미,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배구연습을 위해서 음식 봉사를 해 주시는 각 구역 봉사자님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8월 2일 목요일 저녁미사 후에는 믿음의 샘 뿌리아 월례회가 있습니다.
3. 8월 5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4. 8월 역시 방학인 관계로 소공동체 모임에 대해서는 각 소공동체 별로 모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5. 8월 15일 수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19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합니다. 한국 신자들에게는 의무주일입니다. 의무주일이란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미사가 아니라 꼭 참여해야 하는 미사를 의미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정으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영하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시기를 청합니다.
6. 8월 23일 목요일에는 연령회 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7. 8월 25일 토요일 9시부터 제45회 함부르크 한인 친선 배구대회가 함부르크 시립공원(Hamburger Stadtpark)에서 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회장님이신 배성우(도미니코) 남성부회장님에게 문의를 해주십시오.
8. 8월 29일(수)부터 9월 1일(토)까지 유럽 성령묵상회가 카르디날 술테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4일 토요일 야외미사로 봉헌할 예정입니다.
3. 지난 6월에 서선영(아우구스티노), 김순자(젤트루다) 가정의 딸 서수진(수산나) 자매님이 결혼하였습니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김보경(세라피나) 자매님이 학업으로 인하여 에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세라피나 가정의 앞날에 항상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4.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18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7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7월 14일(토)에 설윤자 헬레나, Uleng Setiahardja 가정에서 가정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2. 8월 공동체 미사는 8월 11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3. 8월 공동체 미사에는 안수경(프란체스카) 자매님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방조영자(젼마)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c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자비의 모후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t.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t. (청년)	매주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 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 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 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젼마)	
			총 무	육종인(베로니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8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주교 학자		
2	목		믿음의 샘 뿌리아	
3	금			
4	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5	일	연중 제18주일	사목월례회	
6	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7	화	입추		
8	수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9	목			
10	금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11	토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2	일	연중 제19주일		
13	월			
14	화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15	수	성모 승천 대축일, 광복절	대축일 미사 19:00 강당	
16	목	말복		
17	금			
18	토			하노버 공동체
19	일	연중 제20주일		
20	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기념일		
21	화	성 비오 10세 교황 기념일		
22	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23	목		연령회 월례회	
24	금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		
25	토		제45회 친선 배구 대회 (Stadtpark)	
26	일	연중 제21주일	가족미사	
27	월	성녀 모니카 기념일		
28	화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학자 기념일		
29	수	성 요한 세례자 수난 기념일	유럽 성령묵상회 (카르디날 슐테 하우스, Bergisch Gladbach)	
30	목			
31	금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